



겨울에도 자동차 에어컨을 작동시켜야 하는 이유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차량 내 히터를 자주 사용한다. 히터는 차량 송풍구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나와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만들어 줘 겨울철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장치 중 하나이다. 하지만 겨울철에도 차량 관리를 위해서는 히터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작동시켜야 한다. 겨울에도 에어컨을 작동시켜야 하는 이유를 쌍용자동차가 소개했다.



A/C버튼은 단순히 찬 공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외에 공기조화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 냉방과 제습을 도와준다.

■ 겨울철에 사용하는 A/C버튼의 기능

■ 창문 김 서림 제거



겨울철 운전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김 서림은 차량의 내·외부 온도차가 클 경우 주로 나타난다. 히터와 사람의 체온으로 차량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습도도 증가해 창문에 뿌옇게 김이 서리는 것이다. 창문 김 서림은 주행 중 시야를 방해해 안전한 주행을 어렵게 만들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때 에어컨을 작동하면 실내와 외부의 온도가 비슷하게 맞춰지고 습기가 제거되면서 창문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다.

■ 창문 성에 제거

김 서림과 성에 모두 자동차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에서 오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성에는 주로 겨울철에 자동차 유리 바깥쪽 수증기가 승화하면서 얼어붙어 만들어지는 서리를 말한다.

성에 역시 주행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외기 순환 모드를 사용하면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성에를 더욱 쉽게 제거할 수 있다.

■ 히터의 불쾌한 냄새 제거



운전자라면 몸을 녹이기 위해 튼 히터에서 나오는 불쾌한 냄새를 맡은 경험 이 있을 것이다. 이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

도 좋지만 눈이나 비가 오는 등 창문을 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것도 공기 순환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에어컨의 공기조화 기능과 제습 기능으로 창문을 열지 않고도 빠르게 불쾌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냄새가 잡히지 않는다면 곰팡이 번식이 심한 상태이므로 에어컨 탈취제를 사용해 냄새를 제거해 준다.

■ 파이프 내부의 곰팡이 예방



하는 방해꾼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성에를 꼭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에어컨을 작동해 주면 보다 쉽게 성에를 제거할 수 있다.

아들의 주 서식지가 되어 더운 여름철 에어컨을 틀게 되었을 때 불쾌한 냄새가 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에어컨을 주기적으로 틀어주면 파이프 내부의 곰팡이 서식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오토 에어컨이 있는 차량이라면 오토 모드를 사용한다. 오토 모드로 두면 에바포레이터에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꼭 사용하도록 하자.

■ 기계 장치 고장 원인 제거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에는 에어컨에 관련된 모든 배관과 연결 고무 바킹들의 컨디션을 유지해 주는 윤활 성분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장기간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으면 에어컨 장치 내에 윤활이 되지 않아 에어컨과 연결되어 있는 배관과 고무 바킹들의 고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올바른 차량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겨울뿐만 아니라 4계절 내내 주기적으로 에어컨을 작동 시켜주는 것이 좋다.



겨울철 에어컨을 틀지 않고 지내면 공기를 배출 해주는 파이프에 습기가 차게 되는데 이 습기가 곰팡이나 박테리

사진, 그래픽=shutterstock



사장님,
힘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께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 (323) 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